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오주승



참혹했던 5·18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광주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체질장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은 광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 선거 결과는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다.

광주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현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많지 않다.

지방선거 결과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정동영 의장 등 여당 지도부의 상황은 위기 그 자체다.

5월 광주와 5·31 지방선거

정치권은 지금 광주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호남 제일의 도시, 광주 유권자의 선택이 방향하는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전통의 당 역사를 되살려 호남지역을 석권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며 호남 사수를 공언하고 있다.

열린우리, 민주 양당이 이처럼 광주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광주시장 선거 하나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는 데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지닌 광주 유권자를 잡아야 향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호남을 지분으로 정치적 거를 할 수

로 한 호남 유권자의 결집으로 인해 가능했다.

광주가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꾼 진원지가 된 이유는 뭘까. 광주시민들이 무슨 특별한 정치교육을 받았다고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이라는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 가면서 투표를 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광주 시민을 몰로 보지마라

광주 시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치적 박해를 몸으로 겪었고, 5·18을 목도한 사람들이다.

이런 시민들에게 돈 공천으로 선거관을 더럽히면서 표를 달라면 되겠는가. 지역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오만함에 빠져있으면서 표를 원하면 뭘까.

광주 시민들은 정당의 법석과는 별도로 이미 나름대로 선택을 내렸을 것이다. 선거 때 반박하는 식으로 표를 달라는 것은 광주 시민들을 몰로 보는 것이다.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시설

문제인 '釜山정권' 발언 또 지역감정 부추기는가

청와대 왕수석, 노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불리는 문제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엇그제 부산에서 열린 문제인 민정수석의 발언이 선거 때마다 도지는 가증스러운 지역감정 부추기기로 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해 왔다는 '용감한 자백'을 한 셈이다.

우리는 문제의 발언이 선거 때마다 도지는 가증스러운 지역감정 부추기기로 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타지역보다 월등한 지원을 해온데 대통령도 같은 지역 사람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는 건 "우리가 남이가" 류의 자열한 지역감정 조장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말대로라면 지역구도 극복을 최대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속으로는 부산민심을 얻기위해 국가의 예산집행과 인사를 편중하게 했다는 것 아닌가. 문제는 끝 다르고 속 다름, 낫과 밤의 말이 다른 이 정부 사람들의 행태를 노골한 것이다.

더욱이 문제의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말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설령 그가 열린우리당 당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 개시일인 18일 이전에 이같은 발언을 한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광주·전남 脫高油價 해법, 풍력·태양에너지다

동양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무안군 해제면에 건설된다. 오늘 착공된 무안 태양광발전소는 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10월부터 4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2MW의 발전능력을 갖추게 된다.

다. 전국 해안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은 풍력과 조력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은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곳곳에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태양에너지 설비단가는 화력발전의 10배에 달한다. 정부가 일반 전력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 대체에너지 시설 투자가 활발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하루 평균 일사량은 m당 5천394kwh로 전국 평균치보다 21%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

다. 최근 정부가 자원의교를 통해 해외 에너지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유망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

無等鼓

배가 고된 원승이에게 먹이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했더니 몹시 화를 냈다. 이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했더니 크게 만족했다.

나. 즉, 이자수입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많아서 오히려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 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면 수요가 줄어 물가를 하락시킨다.

금리와 원승이



그런데 여기에 이자, 즉 금리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침에 먼저 받은 먹이를 옹통해 저녁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똑똑함을 칭찬해 줘야 할 법하다.

또 금리변동은 국가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율 등 여건이 같은 경우 국내 금리인상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금리가 오르면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았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다.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5%로 상향 조정한데 반해 한국은 플금리를 연 4%로 동결했다. 우리의 정책금리 동결은 유가급등과 환율급락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상황을 좀더 지켜 봐야 한다는게 이유다.

/김우승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기고



최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사회 기본단위인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자연히 소홀하게 되고, 각종 학원수업에 허덕이는 자녀들도 많다.

경험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스쿨존을 조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린이 보호는 어른의 몫

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동시에 노란색 바탕에 스쿨존이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도 본다. 출근시간에 촉박하여 스쿨존 내 매시 30km/h라는 속도제한도 무시한 채 질주하는 차량 운전자들도 늘상 본다.

이제는 시민들도 경찰이 있다고 순간만 모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문화 의식의 향상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있어야만 도로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다.

얼마전 운전자의 무관심으로 한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 무궁무궁하게 피어오르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을 먹으며 자라던 어린이가 한순간에 장애인 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무법질주하는 차량들 사이로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는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사>

독자마당

"영수증 필요없다" 미리 밝혀 재원낭비 막았으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며 통행료를 지불하면 영수증을 받는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툭케이트를 빠져나가면서 도로에 버리는 운전자가 많다.

수증이 필요 없다"는 말 한 마디만 하면 그만 절약되는 것이다. 이렇게 절약된 돈은 소의 계층을 돕는 등 다른 재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은펜칼럼

이병우



대한민국에 광주만큼 독특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드물다. 그중에서 으뜸은 민주 성지의 이미지일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민주 성지라는 콘셉트에 거대담론이 결합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광주의 선택은 호남의 민심을 움직이고, 호남의 민심이 움직이면 역사가 바뀐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는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면 기존고객보다 5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면서 기업의 수익은 단골고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성지의 기업사랑운동

타겟에도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각종 경제분야 지수는 광주 전담이 하위권이다. 전국 최고는 고품차 비올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울려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에 들어간 기업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오길 바라겠는가?

그동안 거대담론에 매달려 민생 문제는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거창한 구호나 고준담론을 즐긴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광주 시민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기업 사랑운동에서도 전략적 선택의 묘를 보여 주어 우리나라 기업사랑 운동의 모델이 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사랑 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광주기업인 가야자 구입을 1위라는 것이 민주성지의 기업사랑 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또 하나의 브랜드 자산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보혜양호 홍보팀장·2005년 8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운전중 큰 오디오 소리... 상대방엔 소음일 뿐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가끔 본다. 주로 젊은 운전자들이다. 신호 대기를 하다가 큰 불륨으로 오디오를 켜놓는 운전자에게 조금 낮춰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는 거야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경우 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음악을 자기 좋다고 크게 틀어놓고 다니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